

[존슨앤드존슨] IMAAVY, FDA 승인으로

온난형자가면역용혈성빈혈 최초 치료제 등극 - 파이프라인 다변화
서사에 신규 촉매

26.08.25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FDA, IMAAVY 를 WAIHA 최초 치료제로 승인
- IM 부문 파이프라인 다변화 전략과 같은 결의 호재
- 밸류에이션 이미 높아 주가 영향은 제한적 전망

FDA 가 IMAAVY 를 온난형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체내 항체가 적혈구를 과도하게 공격해 파괴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 적응증에 승인된 약물로는 처음이어서 경쟁 없이 시장을 선점하는 퍼스트인클래스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승인의 매출 기여 규모나 상업화 일정은 입력에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존슨앤드존슨 혁신의약품 (Innovative Medicine) 부문은 STELARA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 역풍에도 DARZALEX·TREMIFYA·CARVYKTI·RYBREVENT/LAZCLUZE 의 초과 성장이 이를 상쇄하며 분기 매출 163.8 억 달러(전년비 +7.8%)로 부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번 IMAAVY 승인은 여기에 신규 성장 축 하나를 더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동안 핵심 드라이버로 짚어온 파이프라인 밀집 전략—RYBREVENT FASPRO, ERLEADA, nipocalimab 다수 적응증 확대 등—과 같은 결로,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흐름이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12 개월 선행 PE 가 20.7 배로 5 년 평균 15.9 배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이미 도달한 상태다. 지난 18 개월간 상당한 폭의 주가 재평가가 선행된 만큼, 개별 신약 승인 하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MedTech 부문의 성장 둔화(3 분기 연속 감속)라는 약점을 메우는 재료로서는 긍정적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앞으로는 IMAAVY 의 초기 처방 확산 속도와 이 신규 적응증이 IM 부문 매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MedTech 둔화 우려를 상쇄할 만큼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88.82	94.19	101.20	108.49	116.65
↳ 증가율	4.30%	6.05%	7.44%	7.21%	7.52%
매출총이익	66.35	68.74	72.67	78.57	84.48
↳ 마진	74.70%	72.97%	71.81%	72.41%	72.43%
EBITDA	30.91	39.53	38.02	41.19	44.96
↳ 마진	34.80%	41.96%	37.57%	37.96%	38.54%
영업이익 (EBIT)	28.10	32.02	32.02	36.44	40.45
↳ 마진	31.63%	34.00%	31.64%	33.59%	34.68%
순이익	24.24	26.21	28.13	30.78	34.48
↳ 마진	27.29%	27.83%	27.80%	28.37%	29.56%
EPS	9.98	10.79	11.58	12.70	14.25
↳ 증가율	0.60%	8.12%	7.30%	9.69%	12.23%
잉여현금흐름 (FCF)	19.84	19.70	25.42	28.61	29.37
P/E	25.1x	18.1x	23.3x	21.3x	19.0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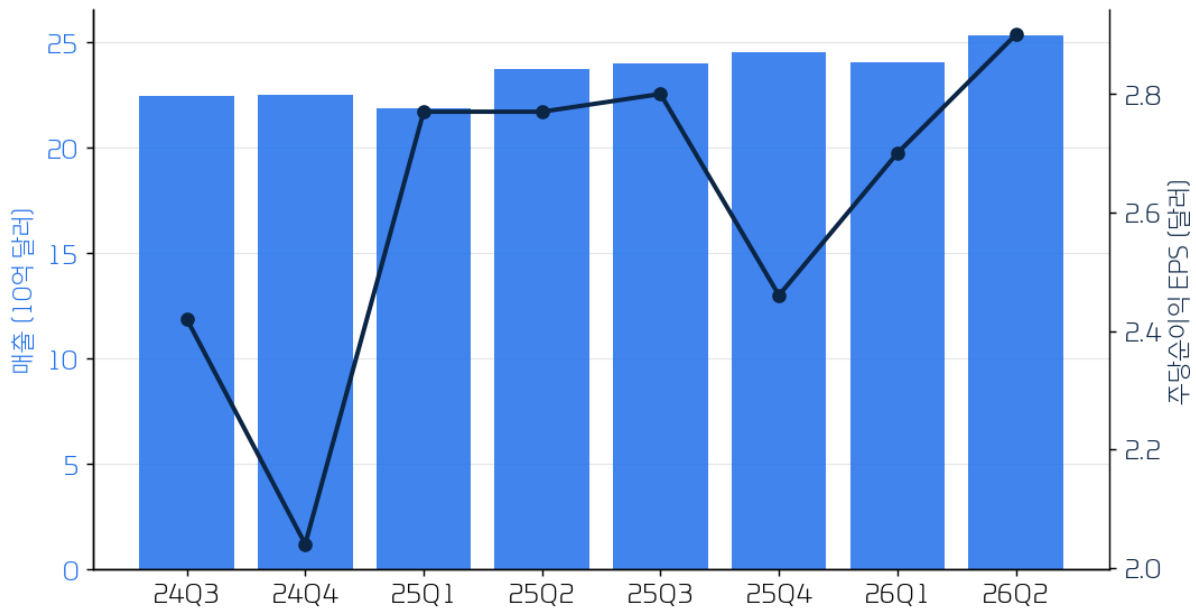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JNJ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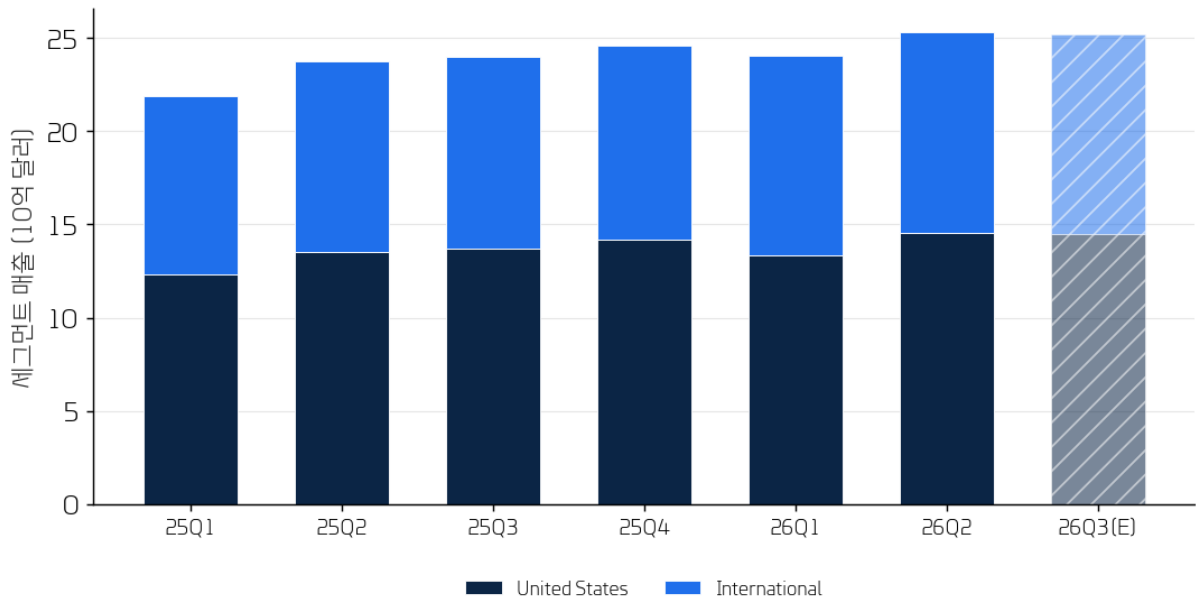


JN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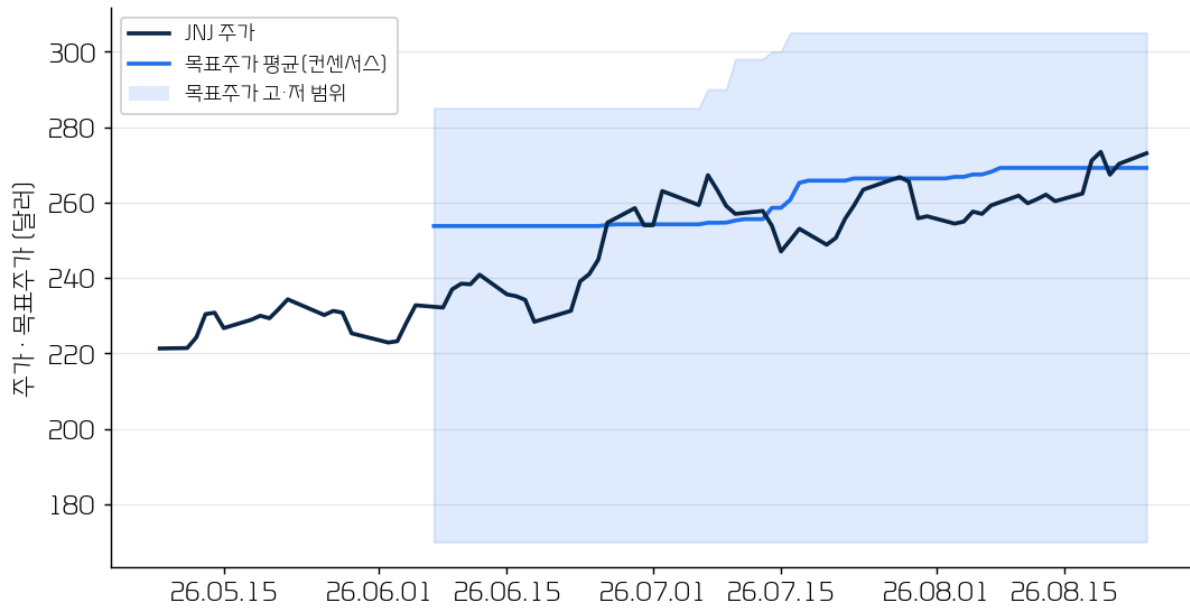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N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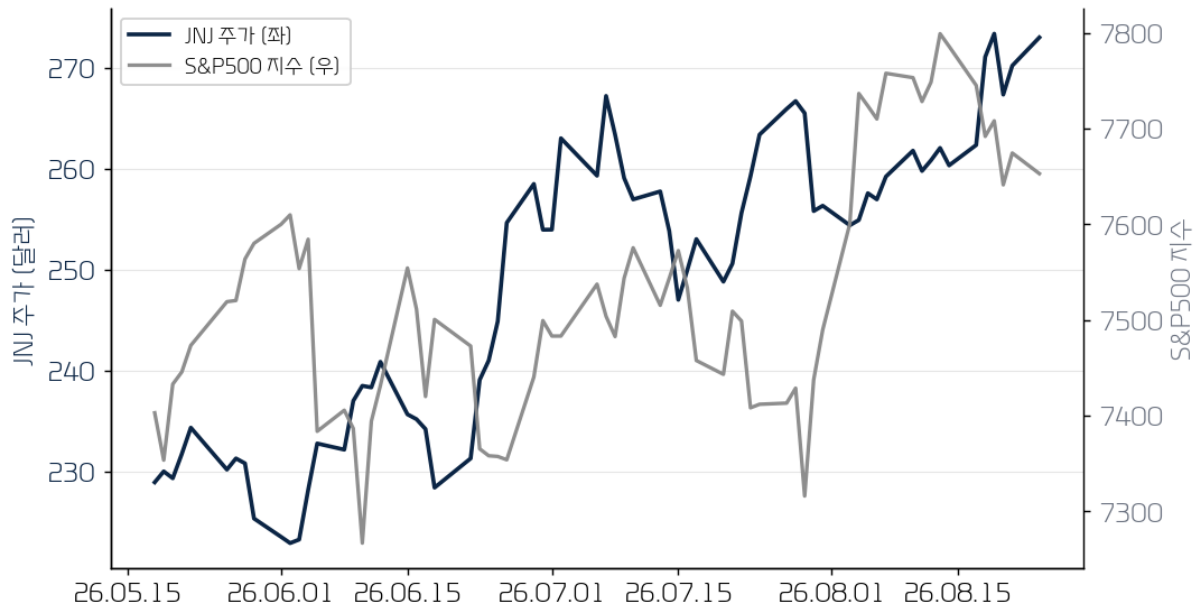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NJ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NJ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